

---

# 일반논문

---



## ‘2열 기둥 주거지’를 통해 살펴본 영서지역 전기 청동기시대 문화교류 및 융합의 현장\*

고 일 흥\*\*

### [초 록]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보이는 2열의 초석 배치는 어느덧 ‘둔산식주거지’의 표지적 특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가락동유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에서 2열 초석이 확인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2열 초석 주거지에 관한 실증적 검토와 그 계통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열 초석은 물론, 2열 주공이 확인된 ‘2열 기둥 주거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영서지역으로 한정시킨 것은 이 지역에서 비가락동계열의 2열 기둥 주거지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되기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연구교수

주제어: 2열 기둥 주거지, 영서지역, 초석,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공간 사용, 건축 전통, 북한지역  
Houses with Dual Post Rows, Yeongseo Region, Bronze Age, Space Use, Architectural Tradition, North Korea

때문이며, 또한 2열 기둥배치를 포함해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어우러진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 화천, 홍천, 정선, 영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장방형에 중심공간과 측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석식노지를 사용하며 바닥에 초석을 설치한 주거지’가 영서지역 2열 기둥 주거지 전통의 초기 모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원형’에서 변화된 다양한 2열 기둥 주거지 전통들이 춘천과 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통해 이러한 2열 기둥 주거지의 원형은 이미 기원전 1800~1700년경에 홍천 지역에 등장했으며, 기원전 1400년 이후로 지역적 특색을 보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른 형태의 2열 기둥 주거지들에서는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반면, 공열토기는 대체로 늦은 형태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2열 기둥 주거지의 원형은 압록강 중·상류유역의 2열 기둥 주거지와 유사하고, 늦은 형태의 2열 기둥 주거지는 동북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와 유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1. 머리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은, 남한 지역에 국한해서 본다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동반했다. 재지의 신석기 시대 주민들도 이러한 전환에 능동적으로 참여했겠지만, 청동기시대의 성립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문화요소들은 외부로부터 온 자극과 그 자극을 전달한 이주민의 역할도 중요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청동기시대 초반의 역동적인 상황은 영서지역에서 특히 잘 보인다.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 개시기부터 새로운 형태의 토기, 석기, 주거지가 다양한 조합을 이루며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에 일어났던 아이디어·물질문화·주민의

유입 및 상호교류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전기 청동기시대 문화의 성립에 관한 담론은 주로 '토기형식'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흔암리유형'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발간된 영서지역 발굴보고서들을 보면 '돌대문계', '이중구연계', '공열계'가 중요한 문화범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토기는 교환되기도 하고, 모방되기도 하며, 고고학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 순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기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을 연구하고, 또한 기왕에 그 '계통'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면, 필자는 토기형식 못지않게 토기의 기종구성, 석기의 기종구성, 그리고 주거지의 전반적인 형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삶의 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옛 주민들의 '삶의 방식'의 공유·단절·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특히 주거지의 형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지금까지는 흔히 주거지 구성요소(예를 들어, 바닥 형태, 노지 형태, 기둥 배치)들의 조합을 하나의 '형식'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주거형식'을 소위 '문화유형'의 한 속성으로 인식해왔다. '미사리식주거지', '둔산식주거지', '역삼동식주거지'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주거지 형태는 주거지의 공간사용 양상과 주거지의 건축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주거지 형태를 통해 우리는 과거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지식 전통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 형태를 단순히 하나의 '형식'으로 치환해서 접근하는 것은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한편, 특정 주거지 형태가 형식화되고 특정 문화유형에 소속될 경우, 기존 인식의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자료는 간과되기 마련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2열 초석 주거지'와 '둔산식주거지'와 '가락동유형'의 관계이다.

둔산식주거지가 “長方形에 圍石式爐址를 비롯하여 礎石, 貯藏孔 등

의 세 요소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주거지로 정의되고,<sup>1)</sup> 초석을 2열로 배치한 주거지가 둔산식주거지의 이른 형식으로 이해되면서,<sup>2)</sup>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은 ‘2열 초석 주거지’를 둔산식주거지로, 다시 말해 가락동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 남강유역과 영서지역에서는 가락동유형과 관련이 없는 주거지에서도 초석이 2열로 배치된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자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가락동유형의 고토(古土)로 지목된 북한지역 내에서 가락동식토기의 분포권과 2열 초석 주거지의 분포권이 겹치지 않는 만큼, 2열 초석 주거지라는 문화요소와 가락동유형이 결합된 것이 남한 지역 내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sup>3)</sup> 따라서 가락동유형과 관련이 없는 2열 초석 주거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무관심은 실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기 청동기시대 영서지역에서 일어났던 역동적인 문화유입·교류·결합의 과정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토기가 아닌 주거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건물 내부에 기둥을 두 줄로 세워 양면으로 경사진 지붕을 지탱했던 ‘2열 기둥 주거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당시 영서지역에 조성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중 ‘2열 기둥 주거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둥을 두 줄로 세웠다는 것은 이 기둥들 위에 대들보와 대공을 설치하여 지붕을 받쳤으며, 특히 중심기둥열과 같은 별도의 시설 없이 지붕의 척추에 해당되는 용마루의 하중을 오로지 대들보가 지탱했음을 의미한다<sup>4)</sup>.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방식의 집짓기는 아이디어의 전수만

- 
- 1) 李亨源(2001), 「可樂洞類型 新考察」, 『湖西考古學報』 4·5합집, 호서고고학회, p. 133.
  - 2) 孔敏奎(2013), 「금강유역 둔산식주거지 재검토」, 『湖西考古學報』 30집, 호서고고학회, p. 24.
  - 3) 高일홍(2015), 「청동기시대 북한지역의 초석 주거지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報』 49집, 호남고고학회.

으로는 재현될 수 없는 고도의 건축기술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부정형 혹은 타원형의 집을 축조했던 영서지역의 신석기시대 전통을 감안하면, 이러한 건축기술이 자생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2열 기둥 주거지'는 외부로부터 - 그리고 초기에는 이주민과 함께 - 유입된 하나의 문화전통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연구는 영서지역에서 일어났던 문화융합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2열 기둥 주거지'의 범주 안에는 앞서 언급한 '2열 초석 주거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2열 초석 주거지와 가락동유형의 다른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한국고고학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연구의 방식에서는 '2열 기둥 주거지'라는 주거 형태의 지역별 분포, 유적별 분포, 개별 속성, 출토 유물 속성 등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분석으로 도출된 '경향'들을 정리하고, 그 경향들의 의의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결과물이 제시된다. 물론 이 방식은 연구 대상에 관한 '팩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 방식에 대해 늘 가지고 있던 불만은, 연구대상과 등가(等價)인 그 외의 동시기의 '대상'들이 너무나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2열 기둥 주거지'를 예로 들자면, '2열 기둥 주거지'에 관한 전통적인 논문에서는 2열 기둥 배치를 '보이지 않는' 동시기의 주거지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2열 기둥 주거지의 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은, 당시에 대다수를 차지했던, 바로 이 非2열 기둥 주거지들이다. 즉, 이 건축전통과 공존했던 다른 건축전통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2열 기둥 주거지가 축조된 취락 못지않게, 이 건축전

4) 김용남, 김용간, 황기택(1975),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통이 자리 잡지 못한 동시기의 취락에 대한 확인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서지역에서 확인된 모든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취락-배경(settlement-scape)<sup>5)</sup>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2열 기둥 주거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락-배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취락들의 하천망 속에서의 위치이다. 왜냐하면 영서지역의 경관 속에서 이루어진 아이디어·물질문화·주민의 이동은 이러한 하천망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서지역의 취락-배경에 관한 본고의 서술은 하천망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러한 당시의 취락-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2열 기둥 주거지가 조성된 취락들과 그 2열 기둥 주거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일부 취락의 경우에는 2열 기둥 주거지만만 아니라, 동시기의 非2열 기둥 주거지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2열 기둥 주거지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하도록 하겠다. 2열 기둥 주거지에 관한 이러한 ‘맥락화’ 작업이 제 3장의 내용이 되겠고, 그 뒤를 이어 제4장에서는 2열 기둥 주거지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2열 기둥 주거지의 공간 사용 양상과 토기상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공시적·통시적 패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2열 기둥 주거지 전통의 정착·계승·변형 과정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5) 이것은 인류학자 팀 잉골드의 ‘taskscape’에서 착안하여 필자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T. Ingold (1993), ‘The Temporality of the Landscape’, *World Archaeology* 25. ‘Taskscape’를 ‘인간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이해하듯이, ‘settlement-scape’이라는 ‘취락에서의 삶과 관련된 인간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 속에서 개별 취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 2. ‘2열 기둥 주거지’의 정의와 그 시간적 위치

영서지역에서는 전기 청동기시대 동안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들이 사용되었다. 본고의 목적에 걸맞게 ‘내측 기둥’<sup>6)</sup>을 기준으로 이 주거지들을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주거지의 내측 기둥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주거지의 각 모서리 주변에 내측 기둥구멍이 보이는 경우,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을 따라 내측 기둥구멍이 1~2개가 보이거나 1열로 나타나는 경우,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 양 옆으로 내측 기둥구멍이 2열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과 그 양 옆으로 내측 기둥구멍이 3열로 나타나는 경우.

이 중 ‘장축 중심선 양 옆으로 내측 기둥구멍이 2열로 나타나는 주거지’를 ‘2열 기둥 주거지’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설정된 2열 기둥 주거지의 범주에서 살짝 벗어난 사례들도 있다는 점이다. 첫째, 2열의 기둥구멍 외에도 주거지의 장축중심선을 따라 1~2개의 기둥구멍은 물론, 3개의 이상의 기둥구멍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그림 1]). 앞서 언급했듯이, 영서지역에서는 ‘3열 기둥 주거지’라는 또 다른 범주의 주거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전형적인 3열 기둥 주거지의 경우에는 중심기둥열의 기둥 개수가 각 내측기둥열의 기둥 개수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중심기둥열이 내측기둥열 못지않게 지붕을 하중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열 기둥 주거지 중 장축중심선을 따라 기둥구멍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중앙의 기둥들이 지붕을 지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열의 기둥

---

6)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에는 두 종류의 기둥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내측 기둥’으로, 비교적 굵은 이 기둥들은 주거지 내부에 대체로 규칙적인 양상으로 세워졌고, 또 다른 하나는 ‘벽측 기둥’으로, 비교적 가는 이 기둥들은 벽면을 따라 규칙적으로 세워지기도 했고, 불규칙한 양상으로 띄엄띄엄 세워지기도 했다. 이 중 주거지의 건축구조와 밀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내측 기둥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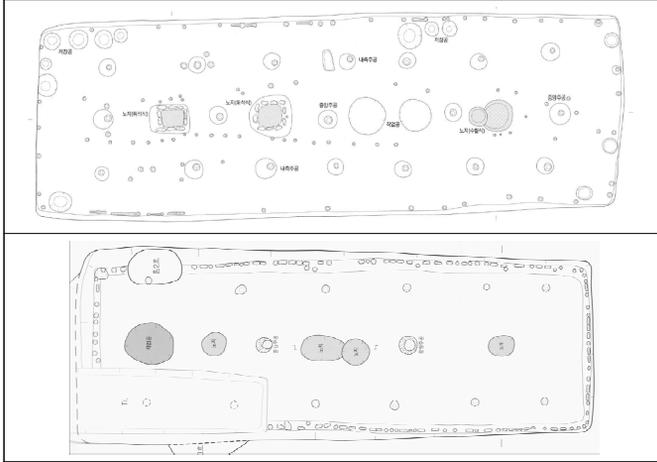
구멍에 장축중심선을 따라서 1~3개의 기둥구멍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주거지도 ‘2열 기둥 주거지’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둘째, 평창 지역의 주거지들에서는 얇은 내측 기둥구멍들이 부정형의 배치양상을 보이는데, 그 부정형의 배치 속에서 2열 기둥열의 흔적이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2열 기둥열 이외의 내측기둥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나 동시기에 세워졌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듯 2열 기둥 주거지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도 일단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홍천 하화계리 1호 주거지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해석을 진행할 때에는 이 주거지들의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하겠다.

셋째, 화천 거례리 3구간 61호 주거지와 5구간 29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방향에 가까운 장단비를 보이며 내측 기둥구멍도 2×2로 배치되어 있어서, 춘천 현암리 1호 주거지나 원주 동화리 1호 주거지, 그리고 더 멀리 찾아본다면 영변 세죽리 27호 주거지와 같이 사면경사 혹은 원추형의 지붕을 올린 주거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둥을 받치기 위해 납작한 초석을 사용한 점이나 토기상에서 거례리의 ‘전형적인’ 2열 기둥 주거지들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두 주거지는 2열 기둥 주거지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결국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해 볼 때, 영서지역에서는 16개의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에서 총 46기의 2열 기둥 주거지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41쪽의 [표 1] 참고).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 주거지 중 일부는 청동기시대 ‘조기’에 해당되고, 일부는 ‘전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특정 2열 기둥 주거지를 조기 혹은 전기로 비정한 근거를 보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주거지 형식, 토기상, 노지의 성격 등에 관한 연구자들의 직관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기’와 ‘전기’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모든 2열 기둥 주거지가 ‘전기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정한 다음, 본고의 IV장에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이용하여 2열 기둥 주거지에 대한 분기설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건축전

통 내에서 시간적 변이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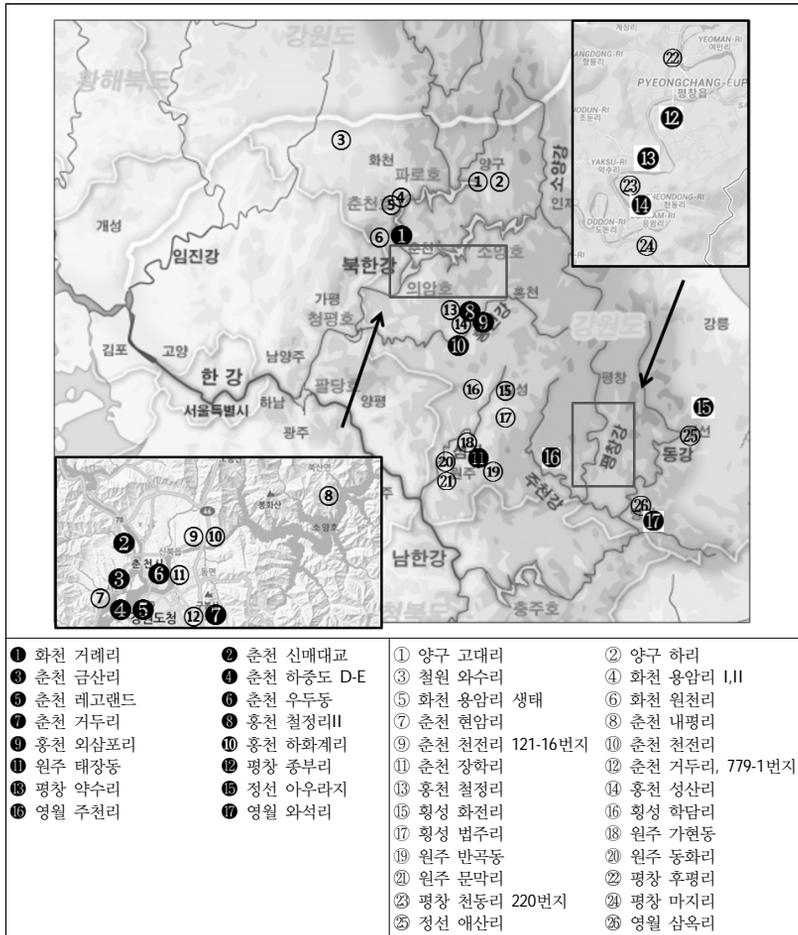


[그림 1] (상) 전형적인 '3열 기둥 주거지'(철원 와수리 4호)와 (하) 주거지의 장축중심선을 따라 기둥이 추가된 '2열 기둥 주거지'(춘천 거두리 2지구 북동 2호)

### 3. 영서지역의 전기 청동기시대 경관, 취락, 그리고 2열 기둥 주거지

영서지역의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크게 6개의 권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그림 2]를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 나와 있듯이, 수계를 중심으로 1) 북한강 본류의 '북부 권역', 2) 북한강 본류와 소양강이 합류하는 '춘천분지 권역', 3) 홍천강 중심의 '홍천 권역', 4) 섬강과 원주천 중심의 '횡성·원주 권역', 5) 평창강 중심의 '평창 권역', 그리고 6) 조양강, 동강, 주천강 중심의 '정선·영월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권역에서 2열 기둥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어, 2열

기둥 주거지의 건축전통이 당시 영서지역에 고루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장에서는 당시의 취락-배경(settlement scape) 속에서 이러한 건축전통의 전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림 2]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유적들. 검정색 번호는 2열 기둥 주거지가 조사된 취락, 흰색 번호는 그러지 않은 취락을 나타낸다.

### 3.1. 북부 권역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양구군에서 서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서천의 충적지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인 고대리<sup>7)</sup>와 하리<sup>8)</sup>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취락들의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장축 중심선을 따라 배치된 기둥구멍만이 확인될 뿐,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철원 와수리 유적<sup>9)</sup>의 경우에는 영서지역의 다른 취락 유적들과는 달리 북한강·남한강이 아닌 한탄강의 지류인 남대천의 충적지에 입지해 있다. 그런데 이곳의 전기 주거지 4기에서도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강은 화천군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 양안에 조성된 충적지에서는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친 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가장 상류에 위치한 용암리의 세 유적<sup>10)</sup>은 당시하나의 대형 취락을 이루었을 텐데, 이곳의 전기 주거지에서는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용암리로부터 대략 2 km 정도 하류에 위치한 거례리 유적에서는 2열 기둥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즉, 거례리 I지구 제3·4·5구간<sup>11)</sup>에서 조사된

7) 江原文化財研究所(2015a), 『楊口 高垈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8) 예맥문화재연구원(2008), 『楊口 下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9) 江原文化財研究所(2006), 『鐵原 瓦水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10) 江原文化財研究所(2005a), 『龍岩里 I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江原文化財研究所(2007), 『龍岩里』,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예맥문화재연구원(2009), 『華川 龍岩里遺蹟』: 화천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11) 江原文化財研究所·원주지방국토관리청(2013b), 『華川 居禮里遺蹟: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거리유물산포지 1지구 5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예맥문화재연구원(2013a), 『華川 居禮里遺蹟: 4대강 살리기사업 북한강 12공구 거례1지구 4구간 내 유적(B구역) 발굴조사보고서』,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지현병 외, 2013, 『華川 居禮里遺蹟: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 거리 1지구 유물산포지 3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백문화재연구원·원주지방국토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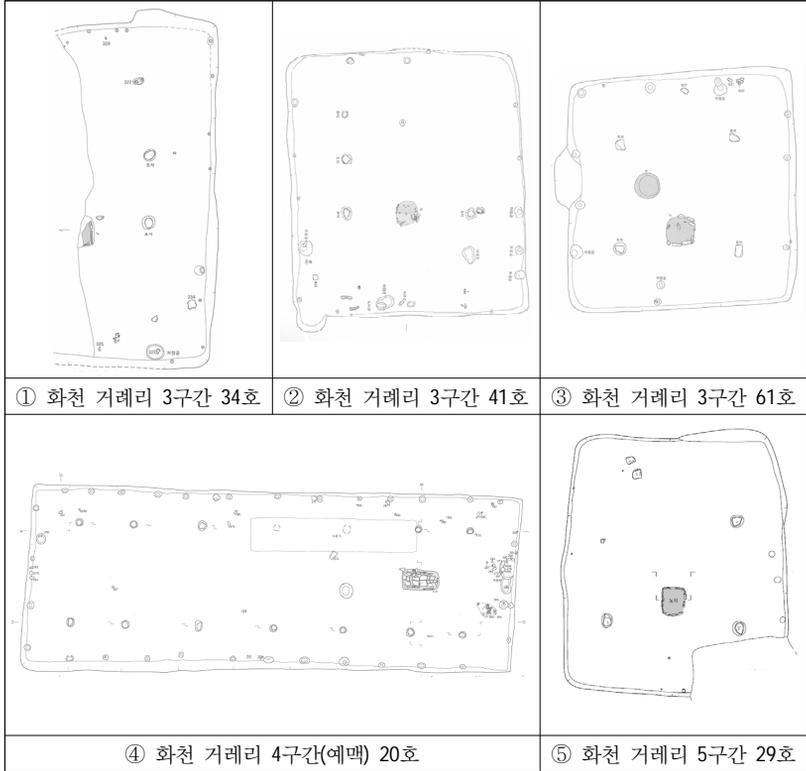
40여 기의 전기 주거지가 중 5기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포착되었는데, 납작한 초석을 주거지 바닥면 위에 설치하거나 바닥면을 살짝 파서 고정시킨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례리의 2열 기둥 주거지들은 대부분 장단비 1.15 이하의 장방형이지만(3구간 34·41·61호, 5구간 29호)(그림 2], ①②③⑤), 거례리 4구간(예맥) 20호 주거지(그림 2], ④)만은 세장방형이며, 주거지의 장축방향도 유일하게 하천의 흐름과 평행하기 때문에 위석식노지의 위치도 ‘전형적인 자리’인 하천 맞은편 단벽에서 이탈된 양상을 보인다.<sup>12)</sup> 제 IV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공간구조의 차이는 시간적 차이에서 기인한 듯하다.

토기상을 보면, 거례리의 2열 기둥 주거지와 동시기의 非2열 기둥 주거지<sup>13)</sup> 모두에서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 장경호가 출토되었지만,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는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만 보인다. 그런데 이 중 공열토기와 非2열 기둥 주거지와와의 상관관계는 하천 건너편에 위치한 원천리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

청(2013), 『화천 거례리 유적: 4대강 살리기 북한강 12공구 거례1지구 4구간 A·C~F 구역』, 서울: 한백문화재연구원.

- 12) 흥미롭게도 출입구시설이 마련된 거례리 3구역의 다른 2열 기둥 주거지들에서는 출입구의 위치가 동, 서, 남쪽으로 다양하지만, 위석식노지는 늘 하천 반대편에 위치한 동쪽 단벽 쪽으로 치우쳐 있다.
- 13) 거례리의 동시기 非2열 기둥 주거지들은 방형 혹은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을 따라 하나의 기둥구멍이 확인된다.



[그림 3] 화천 거례리 유적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원천리 유적<sup>14)</sup>에서 전기 주거지는 16기가 조사되었는데,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위에서 살펴본 거례리의 非2열 기둥 주거지와 형태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유사한 원천리의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도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결국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화천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마연

14) 예맥문화재연구원(2013b), 『華川 源川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토기가 사용되었으나, 다만 2열 기둥 주거지의 거주자들은 유독 공열토기와 마연토기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3.2. 춘천권역 분지

춘천은 태백산맥의 여러 산줄기로 둘러싸인 분지로,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이 분지를 관통하는 북한강 및 소양강의 충적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북한강을 따라서는 하천 서안의 신매리 범람원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8군데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그 주거지 중 30여 기가 전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데,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신매대교<sup>15)</sup> 26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다([그림 3], ①). 위석식노지 및 수혈식노지가 설치된 이 세장방향 주거지에서는 바닥면에 기둥구멍을 2열로 파고 그 안에 기둥을 세웠다. 그런데 춘천 지역의 다른 2열 기둥 주거지들과는 달리 기둥구멍 안에서는 초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신매대교 26호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신매리의 남쪽에 위치한 금산리<sup>16)</sup>에서는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쳐 조성된 취락이 조사되었다. 전기 주거지는 12기에 달하는데, 그중 B-8호 주거지에서만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그림 3], ②). B-8호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세장방향의 주거지로, 바닥면을 깊게 파서 기둥을 2열로 세웠으며, 일부 기둥구멍 안에는 초석을 설치했고,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을 따라 기둥을 추가로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B-8호 주거지와 동시기의 非2열 기둥 주거지 모두에서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후자에

15) 노혁진(2003), 『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翰林大學校博物館.

16) 최중모 외(2012), 『春川 錦山里 遺蹟 :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금산지구)』,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서는 순수공열문토기가 확인되었고, B-8호 주거지에서는 공열문이 구순 각목 및 이중구연단사선과 복합되어 나타난다. 한편, 금산리 이남에 위치한 현암리 유적<sup>17)</sup>에서도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쳐 조성된 취락이 조사되었는데, 16기에 달하는 전기 주거지에서는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운반물질이 쌓이면서 형성된 섬이 중도이다.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취락은 하류 쪽에 있는 하중도 북단의 서쪽 하안과 중심부에서만 조사되었으나(D-E 구간, F 구간, 레고랜드 조성부지), 구순각목토기가 수습된 상중도 역시 청동기시대 삶의 터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중도 D-E 구간<sup>18)</sup>에서는 4기의 전기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9호 주거지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확인되었다([표 3], ③). 위석식노지 및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된 이 장방향 주거지에서는 바닥면을 파고 기둥을 2열로 세웠으며, 일부 기둥구멍 안에는 초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출토된 토기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외반구연토기 등이 있다.

레고랜드 조성부지의 경우에는 발굴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유구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란 어렵다. 그간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290여 기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sup>19)</sup>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이 중 3기(한강 35호, 예맥 163호, 한얼 469호)([그림 3], ④⑤⑥)에서만 확인되었다. 중도 레고랜드의 이러한 2열 기둥 주거지는 모두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초대형의 장방향 주거지로, 무시설식노지가 함께 사용

17) 예맥문화재연구원(2011b), 『春川 玄岩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18) 江原文化財研究所·원주지방국토관리청(2013a), 『春川 中島洞遺蹟: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D-E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19) 한강 35기(한강문화재연구원 2015), 한백 63기(한백문화재연구원 2014), 예맥 78기(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고려 46(고려문화재연구원 2014), 한얼 66기(한얼문화재연구원 2014).

된 경우도 있다. 이 주거지들에서는 바닥면을 파고 기둥을 2열로 세웠으며, 일부 기둥구멍 안에는 초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한강 35호와 한얼 469호에서는 장축 중심선을 따라 한 두 개의 기둥구멍도 확인되었다. 중도 레고랜드 2열 기둥 주거지의 토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맥 163호 주거지의 경우에만 토기의 출토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 레고랜드의 2열 기둥 주거지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1) 돌대문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예맥 163호), 2) 공열토기가 중도 레고랜드의 다른 전기 주거지에서는 보이지만 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 이중구연토기가 2열 기둥 주거지는 물론, 중도 레고랜드의 다른 전기 주거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정도를 요약할 수 있다.

하중도의 남쪽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소양강은 북한의 회양 지역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춘천 분지에 도달한다. 춘천에서는 이러한 소양강을 따라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전환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유적을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전기 및 중기 유적들이 다수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내평리<sup>20)</sup>에서는 공열토기가 출토된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즐문토기가 출토된 말각방형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동일한 문화층 내에 근거리에서 조사되어 두 주거지가 공존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재로 폐기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양쪽 벽면을 따라 기둥을 3개씩 세웠음을 목탄흔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평리를 지나 서쪽으로 흐르는 소양강은 샘밭 범람원을 지나는데, 이곳에 청동기시대의 전시기 동안 유지된 대형 취락이 존재했음을 천전리 121-16번지 유적<sup>21)</sup>과 천전리 유적<sup>22)</sup>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유적들에서 조사된 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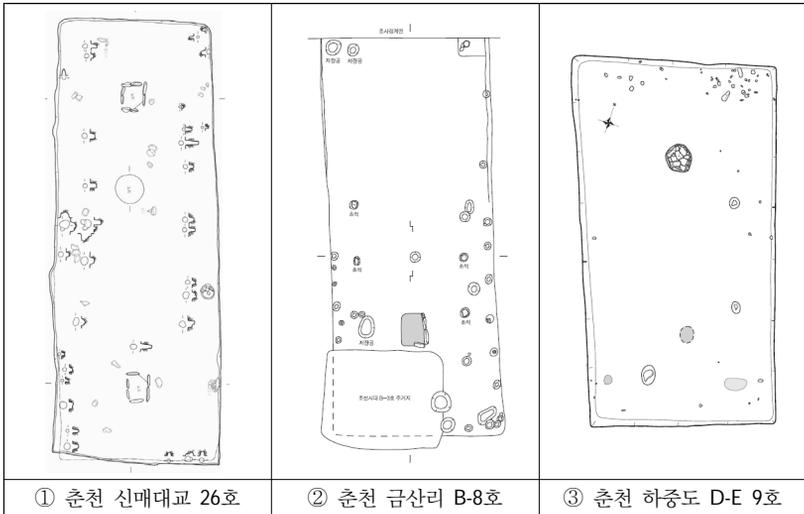
20) 한병삼 외(1974), 『소양강수몰지구유적발굴조사』, 『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서울: 문화재관리국.

21) 노혁진 외(2008),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춘천: 翰林大學校 博物館.

22) 김권중 외(2008), 『泉田里: 동면-신복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

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는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샘밭 범람원을 지난 소양강이 곡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우두 범람원에서는 우두동 I,<sup>23)</sup> 우두동 II,<sup>24)</sup> 우두동 III<sup>25)</sup> 유적을 통해 청동기시대 취락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우두동에서는 10기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나, 우두동 I-19호([그림 3], ⑦)에서만 2열 기둥배치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 반파된 주거지에서는 장축 중심선을 따라 배치된 기둥구멍 2개와 함께 남서 장벽과 평행하게 설치된 내측기둥열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내측기둥열의 기둥구멍 중 하나에는 초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출토된 토기로는 구순각목공열토기와 흑갈색마연토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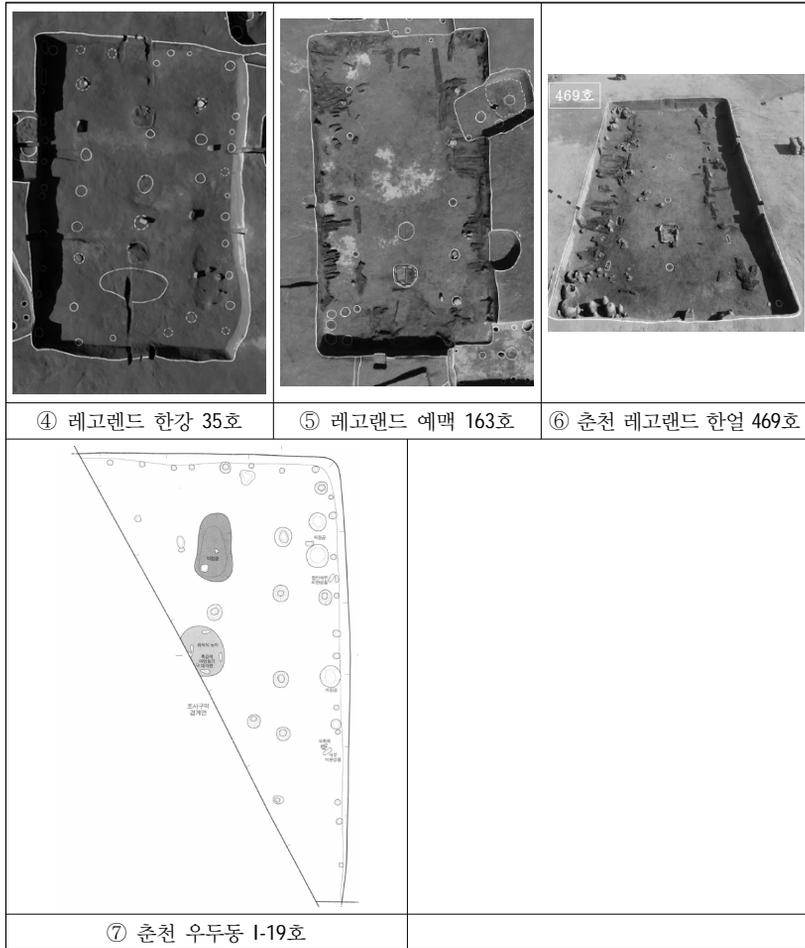
[그림 3] 춘천 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거두 2지구 제외, 축적부동)

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23) 江原文化財研究所(2011c), 『春川 牛頭洞 遺蹟 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24) 江原文化財研究所(2012a), 『春川 牛頭洞 遺蹟 I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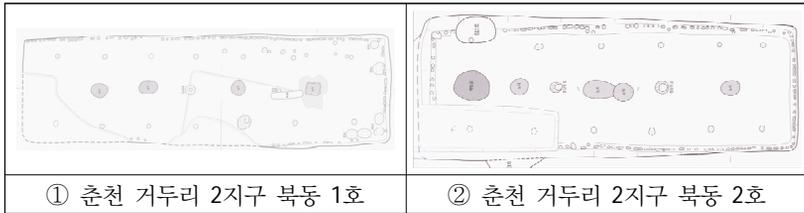
25) 江原文化財研究所(2015b), 『春川 牛頭洞 遺蹟 II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그림 3] 춘천 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거두 2지구 제외, 축적부동)

마지막으로, 소양강의 북안에 위치해 있는 상기의 유적들 외에도, 하천 남안에서도 청동기시대 주민들의 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춘천분지 동남쪽 거두리 인근의 얇은 구릉지와 평탄지에서는 다수의 청동기시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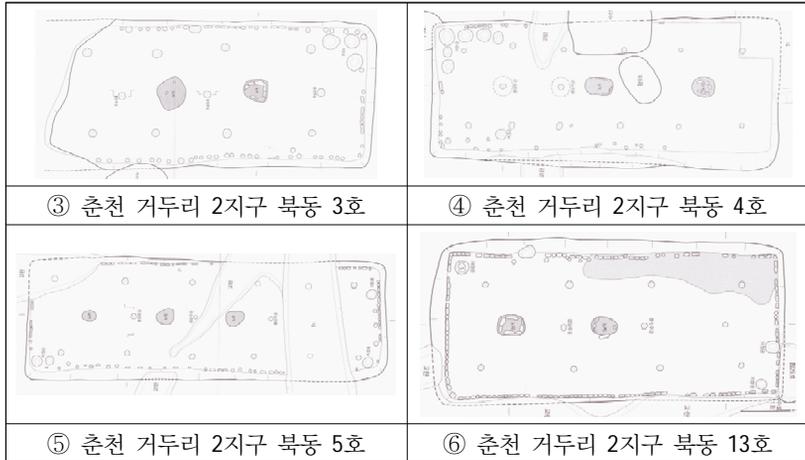
기 및 중기 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평탄지에 위치한 거두리 유적<sup>26)</sup>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는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구릉상의 거두2지구 유적<sup>27)</sup>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이 보인다. 즉, 거두2지구에서는 9기의 전기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2열 기둥 주거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우선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모든 전기 주거지(북동지구 1·3·4·13호)([그림 4], ①③④⑥)에서는 2열로 배치된 내측기둥열과 2~3개의 중심기둥의 흔적이 함께 발견되었다. 또한 수혈식노지만 설치된 주거지의 경우에는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북동지구 2·5호)([그림 4], ②⑤), 1~2개의 중심기둥만 확인된 경우도 있다(북동지구 6·7·12호). 거두2지구 유적의 모든 전기 주거지에서는 바닥면에 기둥구멍을 파고 기둥을 세웠으며, 초석은 사용되지 않았다. 토기가 확인된 모든 전기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가 출토되었으며, 2열 기둥 주거지의 경우에는 노지의 형태와 관계없이 외반구연토기, 장경호, 적색마연토기가 보이지만,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이 토기들이 확인되지 않았다([표 2]).



[그림 4] 춘천 거두 2지구 유적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26) 예맥문화재연구원(2011a), 『春川 擧頭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27) 江原文化財研究所(2008a), 『春川 擧頭2地區 遺蹟 :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



[그림 4] 춘천 거두 2지구 유적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 3.3. 홍천 권역

홍천군 철정리 근방에서 장남천과 내춘천이 합류하여 형성된 홍천강은 하류로 갈수록 산간지대를 심하게 감입곡류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하안단구와 산록완사면이 발달한 홍천강의 상류에서만 발견된다. 지남천의 북안에 있는 철정리 유적<sup>28)</sup>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지만,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철정리 유적의 강 맞은편에 있는 철정리Ⅱ 유적<sup>29)</sup>에서는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친 주거지들이 자연제방 위에서 조사되었다. 보고자는 29기의 전기 주거지를 다시 위석식노지가 하나 설치되고 돌대문토기가 출토된 ‘I단계’ 주거지와 공열토기가 출토된 ‘Ⅱ단계’ 주거지로 세분하였는데, I단계 주거지의 경우에는 11기 중 7기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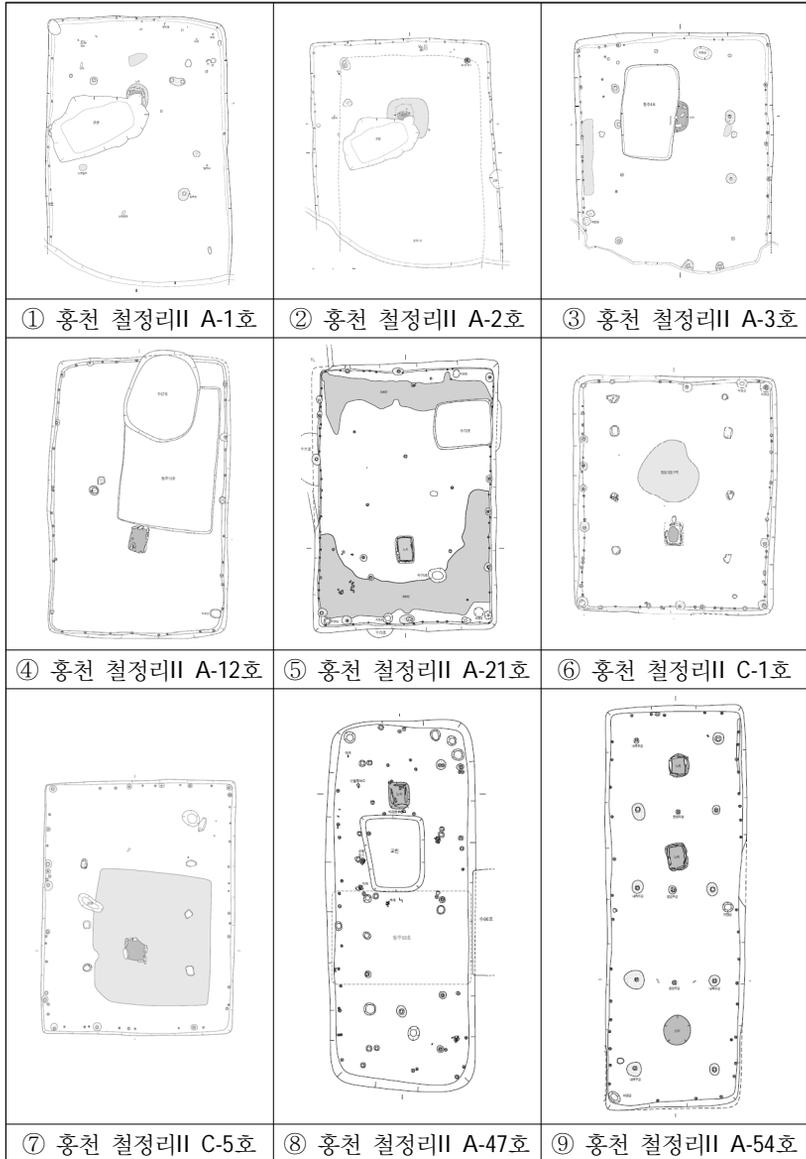
28) 江原文化財研究所(2005c), 『洪川 哲亭理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29) 江原文化財研究所(2010b), 『洪川 哲亭理 Ⅱ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흥미롭게도 기둥 설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철정리II A지구의 2열 기둥 주거지(A-1·2·3·12·21호)([그림 5], ①②③④⑤)에서는 바닥에 기둥구멍을 파고 그 안에 종종 초석을 설치했으나, 철정리II C지구의 2열 기둥 주거지(C-1·5)([그림 5], ⑥⑦)에서는 바닥면에 초석을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토기상을 보면, 돌대문토기는 A지구와 C지구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 아주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이중구연토기 역시 기둥의 설치방식과 상관없이 철정리II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한편, 철정리 I단계의 非2열 기둥 주거지(A-11·28·56·66)에서는 (벽을 따라 6주식의 기둥구멍이 발견된 A-11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기둥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I단계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A-11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이중구연토기도 발견되었다.

철정리II 유적의 II단계<sup>30)</sup> 주거지에는 수혈식노지 주로 설치되었으며, 기둥구멍은 장축 중심선을 따라 1~2개 혹은 1열로 발견된다. 하지만 II단계 주거지 중에서 유일하게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A-47호와 A-54호([그림 5], ⑧⑨)에서는 1개 혹은 3개의 중심기둥과 함께 2열로 배치된 내측 기둥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에도 A지구의 I단계 2열 기둥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구멍을 파고 기둥을 세웠으나, 초석의 사용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철정리II 유적의 II단계 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춘천 신매대교 36호와 금산리 B-8호 주거지의 양상과 유사하다.

30) 필자도 편의상 이러한 I단계, II단계 구분에 따라 각 '단계'의 2열 기둥 주거지와 非2열 기둥 주거지 대해 서술하고는 있다. 하지만 각각의 '단계'를 '그룹'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시간적 차이를 반영하는지는 이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에 입각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그림 5] 홍천 철정리II 유적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철정리로부터 대략 10 km를 내려간 지점에 성산리 유적과 외삼포리 유적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성산리 유적<sup>31)</sup>에서는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지만 조사되었으나, 외삼포리 유적<sup>32)</sup>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5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삼포리의 전기 주거지 중에서는 3호와 5호(그림 6, ①②)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포착되었다.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이 방형 주거지들에서는 바닥면에 초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이러한 2열 기둥의 설치방법은 철정리II C지구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하다. 외삼포리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여러 점의 돌대문토기가 완형 상태로 출토되었고, 그 외에 3호에서는 공열문토기편 1점, 5호에서는 이중외반구연삼거치문토기편 1점이 각각 내부퇴적토에서 발견되었다. 외삼포리의 非2열 기둥 주거지들은 (세)장방형에 위석식노지 혹은 수혈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둥구멍은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을 따라서만 보이는데, 이 주거지들에서는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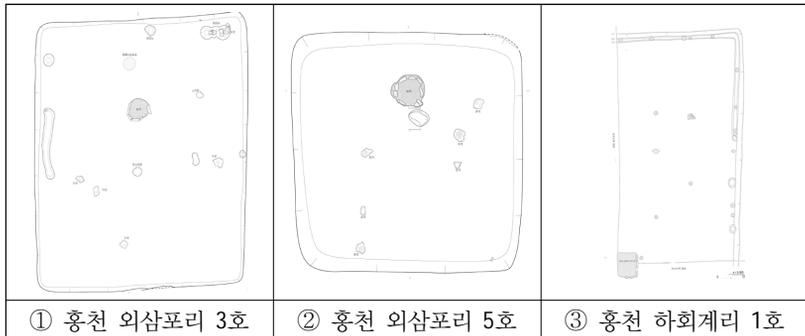
홍천강은 연봉리에서 장전평천과 합류하여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유로가 변경된 하천 주변의 층적지에 하화계리 유적<sup>33)</sup>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1/4만이 조사되었는데, 잔존 너비가 4.69 m인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이웃하는 외삼포리 3호나 철정리II C-1호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주거지에서는 2개의 평행한 축을 따라 배치된 5개의 기둥구멍이 발견되었다(그림 6, ③). 이것이 2열 기둥에 보조기둥을 추가한 것의 흔적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양상의 기둥 배치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주거지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일단은 하화계리 1호 주거지는 전자의 범주에 포함

31) 江原文化財研究所(2012b), 『洪川 城山里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32) 江原文化財研究所(2008b), 『洪川 外三浦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33) 이창현 외(2012), 『洪川 下花溪里 聚落』,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시킴으로써 하였다. 이 주거지에서 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기둥을 세웠으며, 기둥 주변에 석재를 돌려 보강한 흔적도 보인다. 이곳에서는 돌대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림 6] 홍천 외삼포리 및 하회계리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등)

### 3.4. 횡성·원주 권역

횡성군은 대체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들 주변으로 충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화전리 유적<sup>34)</sup>이 이러한 충적지에 입지해 있는데, 이곳의 전기 주거지 9기에서는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물론, 기둥구멍이나 노지의 흔적도 거의 발견되어 않았다. 또한 섬강의 지천들에 의해 둘러싸인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 법주리 유적<sup>35)</sup>의 전기 주거지 2기에서도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횡성군을 지나 원주시에 유입된 섬강은 남서쪽으로 사행하다가 남한

34) 강원고고학연구소(1998), 『횡성 화전리 청동기·철기시대 집자리 유적』, 춘천: 강원고고학연구소.

35) 江原文化財研究所(2012c), 『橫城 法周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강과 합류하는데,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이러한 섬강과 그 지천들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원주 지역에서 섬강과 가장 먼저 합류하는 지천이 원주천인데, 원주천과 흥양천이 만나는 지점에 가현동 유적<sup>36)</sup>이 위치해 있다. 가현동에서 조사된 14기의 전기 주거지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다수의 기둥구멍만이 있을 뿐,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현동에서 흥양천을 따라 500 m 정도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 태장동 유적<sup>37)</sup>에서는 5기의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중 3호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그림 7], ①). 태장동 3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장방형의 주거지로, 2열의 내측기둥과 함께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을 따라 배치된 추정 초석이 발견되었다. 태장동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와 적색마연대각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토기상은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태장동의 비2열 기둥 주거지에서도 보인다. 한편, 원주천 상류의 구릉지대에 위치한 반곡동 유적<sup>38)</sup>에서는 전기 주거지 3기, 섬강과 서곡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충적지에 있는 동화리 유적<sup>39)</sup>에서는 전기 주거지 1기, 그리고 동화리 인근에 있는 문막리 유적<sup>40)</sup>에서는 중기 주거지와 함께 전기 주거지 8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주거지들에서 기둥구멍은 아예 발견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었을 뿐,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36) 江原文化財研究所(2011a), 『原州 加峴洞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37) 신숙정 외(2008), 『원주 태장동 유적』, 원주: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38) 한강문화재연구원(2013), 『원주 반곡동 유적』,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39) 한강문화재연구원(2008), 『원주 동화리 유적』,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40) 한강문화재연구원(2012), 『원주 문막리 유적』,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 3.5. 평창 권역

평창강은 평창군을 가로지르며 남쪽으로 흐르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평창 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들은 이러한 평창강의 충적지를 따라 아주 높은 밀도로 분포한다. 가장 상류에 위치한 후평리 유적<sup>41)</sup>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9기가 조사되었으나,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하류에 있는 취락들에서는 2열 기둥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우선 종부리 유적<sup>42)</sup>의 제Ⅱ구역에서 조사된 6기의 전기 주거지 중 4기(Ⅱ-1·3·4·5호)(그림 7, ②③④⑤)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확인되었다<sup>43)</sup>. 그런데 이 주거지들은 기둥배치가 정연하지 않고 기둥구멍 안에 초석이 설치되지 않았다. 즉, 종부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기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보다는, 직경 10 cm 내외의 얇은 기둥들을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 주거지의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건축전략이 사용되었다. 종부리에서는 2열 기둥 주거지와 非2열 기둥 주거지 모두에서 구순 각목토기와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21기가 조사된 약수리 유적<sup>44)</sup>에서도 2열 기둥 주거지 3기(A-4·A-9·A-10호)(그림 7, ⑥⑦⑧)가 확인되었다. 이 주거지들에서도 바닥에 구멍을 파서 기둥을 2열로 세웠고 초석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둥은 종부리에 비해 좀 더 굵고 또한 정연한 모습으로 배치되었다. 약수리의 2열 기둥 주거지와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천동리 220번지 유적<sup>45)</sup>과 천동리 유적<sup>46)</sup>은 평창강이 또 다시 곡류하

41) 중부고고학연구소(2013), 『平昌 後坪里 遺蹟』, 안양 : 중부고고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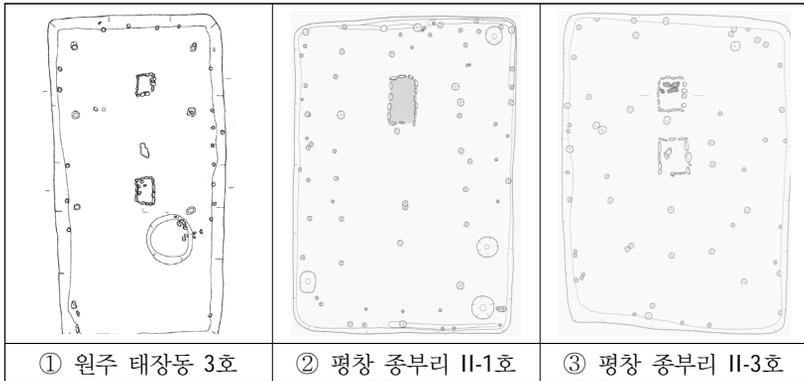
42) 황정욱 외(2013), 『平昌 鍾阜里 遺蹟』,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43) 제Ⅱ구역의 전기 주거지 3기에서는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44) 이창현·신승백(2013), 『平昌 藥水里 聚落』,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전자에서 조사된 유일한 전기 주거지는 흥미롭게도 수혈식노지가 설치된 방향의 주거지로, 2열 기둥배치의 흔적 대신 바닥 중앙부에서 기둥구멍 하나가 확인되었다. 토기로는 이중구연공열 단사선토기,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후자에서는 4기의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반파된 3호 주거지([그림 7], ⑨)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장축 중심선을 따라 배치된 2개의 기둥구멍과 함께 확인되었다. 천동리에선 2열 기둥 주거지와 非 2열 기둥 주거지 모두에서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유적<sup>47)</sup>에서는 12기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장방향에 위석식노지 혹은 수혈식노지가 설치되거나 방향에 수혈식노지가 설치되거나 노지가 아예 발견되지 않은 이 주거지들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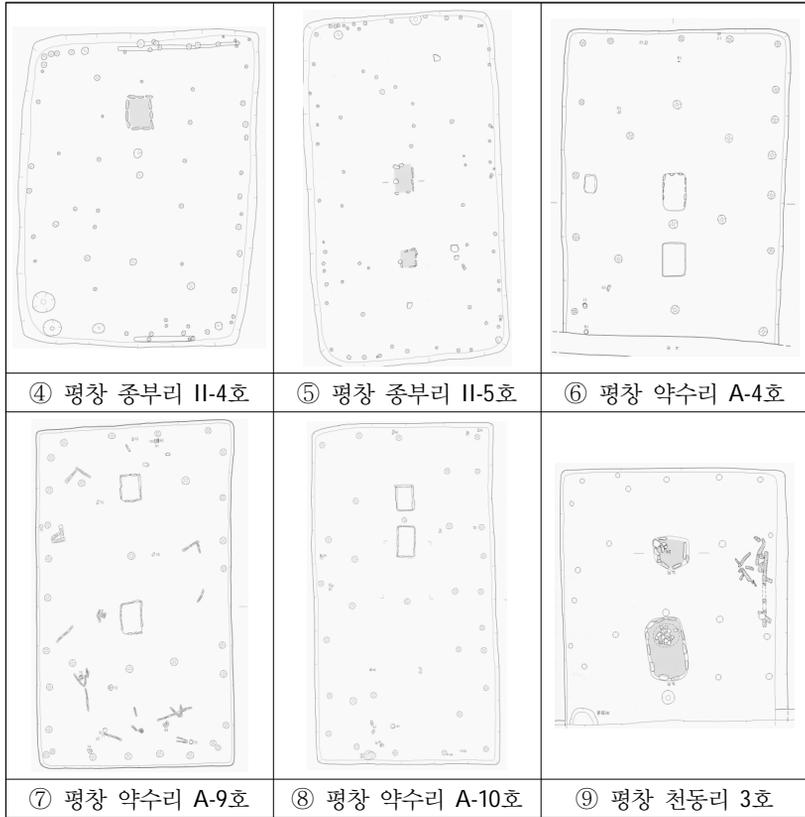


[그림 7] 원주 및 평창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45) 江原文化財研究所(2011e), 『平昌 泉洞里 220번지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46) 윤석인 외(2012), 『平昌 泉洞里·馬池里 聚落』,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47) 윤석인 외(2012), 『平昌 泉洞里·馬池里 聚落』,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그림 7] 원주 및 평창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 3.6. 정선·영월 권역

남강 수계의 발원지인 조양강은 정선에서 동강으로 이어지며 영월에서는 평창강과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조양강은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면서 형성되는데, 이 두 지천이 만나는 지점 주변의 축적지에 아우라지 유적<sup>48)</sup>이 위치해 있다. 이 유적에서 내부조사 및 보고가

완료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지역의 18기로 모두 전기 주거지이다. 아우라지의 이러한 전기 주거지는 모두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지의 위치도 대체로 강 반대편의 단벽에 치우쳐 있는데, 이는 앞서 거례리 유적에서도 관찰된 양상이다. 이렇듯 강한 유사성을 보이는 아우라지의 주거지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5기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이 2열 기둥 주거지들 중 3기(8·9·13호)([그림 8], ①②③)에서는 바닥면 위에 초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으며, 그 외의 보조기둥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시 2열 기둥 주거지인 1호와 12호([그림 8], ④⑤)에서는 상당히 다른 기둥 설치방식이 관찰되는데, 즉 기둥들 중 일부는 바닥면에 설치된 초석 위에 세워졌지만, 나머지 기둥들은 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세우기도 했고, 12호 주거지에서는 기둥구멍 안에서 초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이 두 주거지에서는 주거지의 장축 중심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토기상을 보면, 아우라지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 직구장경호, 적색마연토기, 두형토기/대각, 구순각목토기가 공통적으로 보이며, 바닥에 초석이 설치된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외반구연토기도 출토되었다. 아우라지의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소량의 돌대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아우라지 유적 근방에서 발원한 조양강은 그 상류에서 어천과 합류하는데, 그 동북쪽 구릉지대에 걸쳐 조성된 애산리 유적<sup>49)</sup>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기가 구릉 정상부에서 발견되었다. 장방형에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이 화재 폐기 주거지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기둥구멍 7개만이 확인되었을 뿐,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토기로는

48) 江原文化財研究所(2011b), 『정선 아우라지 유적』,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49) 韓國考古環境研究所·정선군(2008), 『旌善 愛山里 遺蹟』, 연기군: 韓國考古環境研究所.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조양강과 오대천이 합류하여 형성된 동강은 강하게 회절하면서 남서쪽으로 흐르는데, 이러한 회절 지점 중 한 곳에 위치한 영월군 삼옥리(江原文化財研究所 2010a)에서는 하천 배후의 구릉지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기와 구상유구가 조사되었다.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혈식노지 1개가 확인된 이 주거지에서는 기둥구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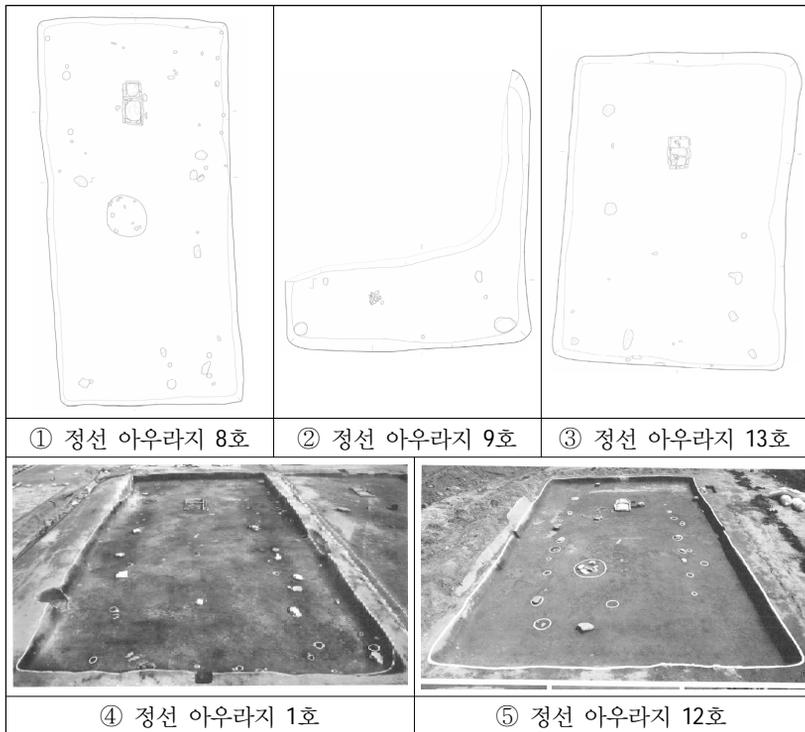
한편, 횡성군과 평창군의 경계 지역에서 발원한 주천강은 산지 사이를 감입사행하며 영월군을 가로지르는데, 그 주변에 발달한 충적지에 주천리 유적<sup>50)</sup>이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7기 중 6호와 7호(그림 8, ⑥⑦)에서 2열 기둥배치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두 주거지의 장단비와 노지 설치 양상은 비슷하나, 면적에서 차이가 많이 나며(6호: 34.8 m<sup>2</sup>; 7호: 62.4 m<sup>2</sup>), 2열 기둥의 설치방법도 서로 다르다. 즉, 소형인 6호 주거지에서는 바닥에 구멍을 파서 기둥을 세웠으며 초석은 사용하지 않았고 중심기둥을 하나 더 세웠다. 반면, 7호 주거지에서는 초석을 주로 바닥에 고정시킨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세웠으며, 별도의 중심기둥은 설치하지 않았다. 주천리의 전기 주거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2열 기둥 주거지와 非2열 기둥 주거지 모두에서 공열토기, 공열복합문토기, 구순각목토기가 보이며, 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마연토기도 확인되었다.

주천강은 주천리 유적을 지나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평창강과 합류하여 서강을 이루고, 이후 조양강의 연속인 동강과 합류하여 남한강 이루게 된다. 이러한 남한강은 서쪽으로 흐르는 옥동천과 합류하면서 서남쪽으로 그 유로가 급격히 변경되는데, 이러한 옥동천의 충적지에 와석리 유적<sup>51)</sup>이 위치해 있다. 와석리 유적에서는 50여 m 떨어져 있는 I구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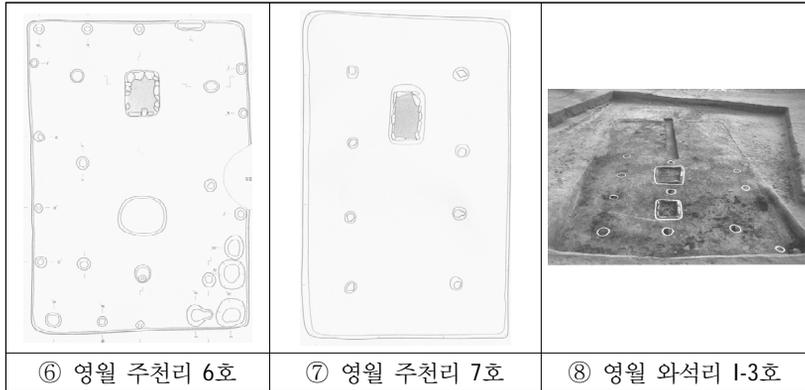
50) 江原文化財研究所(2009), 『寧越 酒泉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51) 황정욱 외(2012), 『寧越 臥石里 遺蹟』,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II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6기와 1기가 각각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방형에 위석식노지 혹은 수혈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심기둥이나 내측기둥의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방형에 복수의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2기의 주거지에서는 장축 중심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3개씩 발견되었으며, 그중 I-3호 주거지(그림 8, ⑧)의 경우에는 2열 기둥열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이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단 사선구순공열토기와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토기상은 와석리의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8] 정선 및 영월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그림 8] 정선 및 영월의 2열 기둥 주거지(축적부동)

### 3.7. 2열 기둥 주거지의 지역권별 전개양상

영서지역에서 2열 기둥 주거지는 모든 권역에서 확인되지만, 상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권역별로 그 건축전통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2열 기둥 주거지의 건축전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곳은 **홍천 권역**으로, 이 권역에서는 5곳의 취락 중 3곳에서 2열 기둥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또한 각 취락 내에서도 2열 기둥 주거지의 점유율이 꽤 높았다. **정선·영월 권역**에서도 이 건축전통이 잘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권역에 조성되었던 가장 큰 규모의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인 아우라지에서는 I지역의 18기 주거지 중 5기가 2열 기둥 주거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근의 발굴을 통해서도 2열 기둥 주거지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영월 주천리와 와석리에서도 2열 기둥 주거지가 각각 2기와 1기가 확인된 만큼, 이 건축전통이 조양강-동강-주천강 수계를 따라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천분지 권역**의 경우에는 2열 기둥 주거지가 소양강이 가로지르는 분지의 동쪽보다는 북한강 본류가 통과하는 분지의 서쪽에 위치한 취락들 사이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춘

천분지의 서쪽 부분에서 2열 기둥 주거지 전통은 두 곳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한곳은 청동기시대 영서지역의 핵심 취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중도 및 그 주변이며, 또 다른 곳은 구릉성 지대에 입지한 거두리 2지구이다. 그런데 취락(군)별로 2열 기둥 주거지의 빈도를 살펴본다면, 중도보다는 거두리에서 이 전통이 강하게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부 권역에서 화천 용암리·거례리·원천리 유적으로 이루어진 취락군은 전기 청동기시대 인구가 집중된 중심지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2열 기둥 주거지는 오로지 거례리에서만 확인되었으며, 그 수도 취락의 규모를 감안할 때 높은 편은 아니다. 한편, 평창 권역은 2열 기둥 주거지의 '변형'이 관찰되는 곳이다. 평창강을 따라 밀집된 6곳의 취락 중 3곳에서 2열 기둥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모두 전형에서 벗어난 사례들이었다. 즉, 평창 권역의 2열 기둥 주거지들은 내측 기둥과 벽측 기둥의 굽기가 같으며, 기둥들의 배치에서 정형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양상은 평창의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도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2열 기둥 주거지 전통이 가장 약했던 곳은 **횡성·원주 권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주거지들에서는 기둥구멍의 흔적이 아주 미미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며, 2열 기둥 주거지는 오로지 원주 태장동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2열 기둥 주거지 전통의 이러한 권역별 차이는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2열 기둥 주거지의 공시적·통시적 패턴과 토기상을 분석한 다음에 논의하겠다.

## 4. 영서지역 2열 기둥 주거지의 특징

### 4.1. 2열 기둥 주거지의 공간 사용 및 건축 기술

제3장에서 살펴본 46기의 2열 기둥 주거지의 제원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이러한 2열 기둥 주거지의 특징을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을 ‘공간 사용 양상’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우선 주거지의 장단비를 보면, 장단비 2.0 이하의 장방형 주거지와 장단비 2.0을 초과하는 세장방형 주거지 모두에 2열 기둥열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세장방형 주거지의 경우, 초대형인 거례리 4구역 20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그 너비가 5.5 m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지의 너비는 당시의 공간 사용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왜냐하면 주거지 내부에 2열로 기둥열을 세울 경우, 건축상의 이유와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서라도 내측기둥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장방형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 ‘중심공간’을 이루는 내측기둥열 사이의 거리는 2.4~4 m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세장방형 주거지의 전체 너비가 5.5 m를 넘지 않았기에, 이는 내측기둥열과 주거지 벽면 사이의 거리가 1 m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세장방형의 2열 기둥 주거지의 경우에는 내측기둥열과 주거지 벽면 사이의 ‘측면공간’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장방형 주거지의 경우, 그 너비는 대체로 6~10 m에 이르렀다. 주거지의 너비가 이렇듯 넉넉하여, 방형·장방형 주거지에서는 ‘중심공간’과 ‘측면공간’을 모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내측기둥열 사이의 거리는 3~6 m 정도가 되었고, 내측기둥열과 주거지 벽면 사이의 거리도 적어도 1.2 m은 넘었고 대체로 1.5 m 이상이였다. 다만 평창 권역의 장방형 주거지들은, 월등하게 큰 종부리 II-5호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작아서 주거지의 너비는 6 m 이하였고, 내

측기동열 사이의 거리도 3.2 m 이하였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평창 권역 장방형 주거지의 너비가 세장방형 주거지의 너비와 비슷하나, 내측기동열과 주거지 벽면 사이의 거리는, 세장방형 주거지의 경우와는 달리, 대체로 1 m를 넘었다는 점이다. 규모가 작은 영월 주천리의 장방형 주거지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영서지역의 장방형 2열 기둥 주거지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중심공간’과 ‘측면공간’을 둘 다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영서지역 2열 기둥 주거지 제원

지역	유적	번호	형태 (장단비)	길이 (m)	너비 (m)	면적 (㎡)	노지	2열 기둥 설비방법	내측기동열 간 간격/ 내측기동열- 벽면 간격	돌 대문	이 중 구 연	구 순 각 목	공 열	
화천	거례리3	34	?	10.2	(3.45)	?	(점토)위석식	초석	3.3/1.6(추)	●				
		41	1.15	9.87	8.61	84.9	위석식	초석	4.6/2.0		●			
		61	1.04	7.3	7.0	51.1	위석식, 수혈식	초석	3.5/1.6		●			
	거례리4 예맥	20	2.67	26.7	10.0	267	(석상)위석식	초석	5.8/1.9	●				
	거례리5	29	1.15	9.10	7.92	72	(점토)위석식	초석	4.6/1.5	●				
춘천	신매대교	26	2.71	11.12	4.1	45.6	위석식2, 수혈식1	기둥구멍	2.5/0.8			●	●	
	금산리	B-8	?	(11.72)	4.88	?	위석식	기둥구멍 내 초석	3.2/0.8		○	●	●	
	하중도 D-E	9	1.83	17.68	9.66	170.7	(석상)위석식, 평지식	기둥구멍 내 초석	4.6/2.5	●				
	레고랜드 한강	35	1.44	13.93	9.64	134.3	위석식1 무시설식	기둥구멍 내 초석	5.5/2.0					
	레고랜드 예맥	163	1.9	18.12	8.20	172.5	위석식1 무시설식	기둥구멍 내 초석	4.9/1.6	●		●		
	레고랜드 한얼	469	?	?	?	?	위석식	기둥구멍	?					
	우두동1	19	?	?	?	?	위석식	기둥구멍 내 초석	?			●	●	
	거두리2지구 (북동)	1	3.26	15.49	4.75	73.6	위석식1, 수혈식3	기둥구멍	3.3/0.7				●	
		2	2.60	13.65	5.26	71.8	수혈식4	기둥구멍	4.0/0.6				●	
3		?	(9.0)	4.92	?	위석식, 수혈식	기둥구멍	3.3/0.8				●		

142 인문논총 제74권 제3호 (2017.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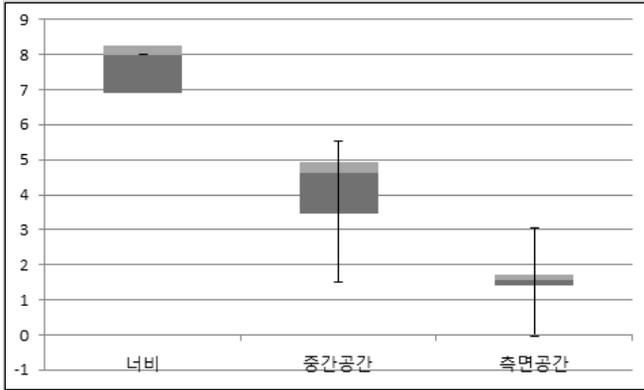
지역	유적	번호	형태 (장단비)	길이 (m)	너비 (m)	면적 (m <sup>2</sup> )	노지	2열 기둥 설비방법	내측기둥열 간 간격/ 내측기둥열- 벽면 간격	돌 대문	이 중 구 연	구 순 각 목	공 열
춘천	거두리2지구 (북동)	4	2.26	12.41	5.49	68.1	위석식, 수혈식	기둥구멍	3.6/0.8			●	●
		5	2.93	13.65	4.66	63.6	수혈식3	기둥구멍	3.2/0.7				●
		13	2.17	10.81	4.98	53.8	위석식2	기둥구멍	3.0/0.9				●
홍천	철정리II	A1	?	?	7.22	?	위석식	기둥구멍 내 초석	3.6/1.8	●			
		A2	?	?	9.3	?	위석식	기둥구멍 내 초석	?	●			
		A3	?	?	9.65	?	위석식	기둥구멍	5.9/1.8	●			
		A12	1.56	10.71	6.87	73.6	위석식	기둥구멍 내 초석	?	●			
		A21	1.47	13.66	9.3	127.0	위석식	기둥구멍	4.9/2.1	●	●		
		A47	2.49	11.3	4.45	51.3	위석식	기둥구멍	2.6/0.9				● ●
		A54	2.84	12.51	4.4	55	위석식2, 수혈식1	기둥구멍	2.8/0.8				● ●
		C1	1.18	10.45	8.85	92.5	위석식	초석	5.0/1.9	●	●		
		C5	1.33	10.6	7.95	84.3	위석식	초석	4.3/1.7	●			
	외삼포리	3	1.27	10.25	8.05	82.5	위석식	초석	4.7/1.6	●			○
		5	1.04	7.1	6.68	48.6	위석식	초석	3.0/1.8	●	○		
1		?	?	?	?	위석식	기둥구멍	?	●				
원주	태장동	3	2.04	9.04	4.42	40.0	위석식2	기둥구멍	3.1/0.6				●
명창	총부리(II)	1	1.4	7.2	5.1	36.7	위석식	기둥구멍	3.0/1.0		●		
		3	1.4	7.0	5.1	35.7	위석식2	기둥구멍	3.2/0.9		●	●	
		4	1.3	7.8	6.0	46.8	위석식	기둥구멍	2.4/1.8				●
		5	1.8	13.9	7.8	108.4	위석식2	기둥구멍	5.2/1.2	●			● ●
	약수리(A)	4	?	(7.06)	5.17	?	위석식2	기둥구멍	2.1/1.5				
		9	1.75	8.74	4.99	43.61	위석식2	기둥구멍	2.4/1.3				●
		10	1.68	9.14	5.44	49.72	위석식2	기둥구멍	3.1/1.2				● ●
천동리	3	?	(5.0)	4.45	?	위석식2	기둥구멍	2.5/0.9				●	
정선	아우라지	1	1.9	16.9	8.92	150.75	위석식(분합)	기둥구멍 내 초석	5.8/1.3	●	●		
		8	2.0	17.58	8.92	156.8	위석식(분합)	초석	6.1/1.4	●	●	● ●	
		9	1.1	9.0	8.14	73.3	?	초석	5.7/1.2	●			●
		12	1.7	15.47	9.16	141.7	위석식(분합)	기둥구멍 내 초석	5.4/1.8	●			
		13	1.4	11.28	8.04	90.7	위석식(분합)	초석	4.9/1.5	●			
영월	주천리	6	1.4	7.1	4.9	34.8	위석식	기둥구멍	3.1/0.9				
		7	1.5	9.9	6.3	62.4	위석식	초석	3.4/1.4				

그렇다면 이렇게 확인된 2열 기둥 주거지의 공간 사용 양상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적 차이인가, 공간적 차이인가, 아니면 그 외의 차이를 반영하는가? 시공간적인 차이의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이 주거지들에서 사용된 기둥 설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열 기둥 주거지의 범주 안에는 '2열 초석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다. 즉, 2열 기둥 주거지에서 기둥을 세울 때 초석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초석을 바닥 상면에 혹은 바닥을 살짝 파서 설치하기도 했고, 기둥구멍을 파고 그 안에 초석을 깊이 설치하기도 했다. 한편, 초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멍 안에 2열 기둥열을 세우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둥 설치 방법과 위에서 확인한 2열 기둥 주거지의 공간 사용 양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일단 바닥 상면에 초석이 설치된 모든 주거지는 '중심공간'과 '측면공간'이 충분히 마련된 장방형 주거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주거지들의 경우, 위석식노지가 1개씩 마련되어 있으며, 주거지 너비, 내측기둥열 간 거리, 내측기둥열과 벽 사이의 거리에서 높은 유사성이 확인된다([그림 9] 참고). 한편, 세장방형 주거지의 경우에는, 초대형인 거래리 4지구 20호를 제외하면, 초석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초석의 부재가 세장방형 주거지만의 특징은 아니다. 왜냐하면 평창 권역의 장방형 주거지와 장방형의 철정리II A21호, 영월 주천리 6호 주거지에서도 초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둥구멍 안에 초석을 깊이 설치한 경우도 세장방형 주거지와 장방형 주거지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거지 형태와 기둥 설치 방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에서 장방형의 주거지들은 열은 빗금이 칠해져 있으며, 바닥 상면에 초석이 설치된 경우는 '2열 기둥 설치방법' 열에서 더 진한 빗금이 칠해져 있다. 결국 영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 전통 내에서 가장 적은 변이를 보여주는 것은 '장방형에 바닥면 위에 초석이 설치되고 위석식노지가 1개 마련된 주거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주거

형태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2열 기둥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9] 바닥면에 초석이 설치된 장방형 2열 기둥 주거지의 너비, 내측기둥열 간 거리, 내측기둥열과 측벽 사이의 거리 측정치의 분포를 나타낸 박스플롯

#### 4.2. 2열 기둥 주거지의 토기상

영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 2열 기둥 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 이 중구연토기, 공열토기가 모두 보이는데, 각각의 토기와 2열 기둥 주거지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포착된다. 우선 돌대문토기는, 세장방형에 초대형인 거례리 4지구 20호를 제외하면, 오로지 위석식노지가 마련된 장방형 계열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만 보인다. 그런데 이때 기둥의 설치방식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돌대문토기는 바닥면에 초석이 설치된 주거지, 바닥면에 구멍을 파서 기둥을 설치한 주거지, 기둥구멍 안에 초석을 설치한 주거지 모두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대문토기가 동기시인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도 보이는 만큼, 장방형 계열의 2열 기둥 주거지만의 문화요소로 볼 수 없



[표 4] 정선 아우라지 유적 2열 기둥 주거지 및 동시기 非2열 기둥 주거지 토기 출토 양상(●는 토기가 출토되었음을 나타낸다.)

	아우라지 2열 기둥 주거지					동시기의 아우라지 非2열 기둥 주거지							
	1호	8호	9호	12호	13호	3호	4호	7호	10호	15호	16호	17호	18호
돌대문토기	●	●	●	●	●	●			●	●			
이중구연(단사선)토기	●	●											
외반구연토기	●												
장경호	●		●		●								
적색마연토기		●	●		●								
두형토기/대각	●				●			●					
구순각목토기		●	●		●	●	●	●	●	●			●
공열토기		●			●	●		●	●	●	●	●	

공열토기의 경우에는 세장방형 계열 2열 기둥 주거지와 평창 권역의 장방형 계열 2열 기둥 주거지에서 모두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정 공간 사용양상과의 관련성을 상정하기란 어렵다. 다만, 초석이 있거나 없는 구멍에 기둥을 세우는 설치 방식과 공열토기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보인다. 즉, 18기의 공열토기 출토 주거지 중 오로지 외삼포리 C-5호와 아우라지 8호 주거지에서만 바닥면에 초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중 외삼포리의 C-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공열토기는 후대 유입품일 가능성도 있다.<sup>52)</sup> 아우라지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공열토기는 유입품으로 볼 근거는 없는데, 이 주거지에서 공열토기와 돌대문토기가 함께 확인되어 매우 흥미롭다.

이중구연토기는 사실 영서지역에서는 2열 기둥 주거지보다는 非2열 기둥 주거지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춘천 현암리 1·3호 주거지, 원

52) 외삼포리 C-5호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편 1점이 들문토기편과 함께 내부퇴적도에서 발견되었는데, 주거지 바닥면에서는 여러 점의 돌대문토기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조사된 정황으로 보아, 공열토기편은 후퇴적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 동화리 1호 주거지, 그리고 원주 가현동 4·6·7·8호 주거지가 그 예이다. 하지만 이중구연토기가 2열의 기둥배치와 함께 확인될 경우, 그것은 반드시 위석식노지가 마련된 장방형의 주거지에서이다<sup>53)</sup>. 이중구연토기는 바닥에 초석이 설치된 경우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그 외의 기둥 설치 방법을 보이는 주거지에서도 나타난다.

2열 기둥 주거지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토기상과 관련하여, 돌대문토기, 공열토기, 이중구연토기가 공반 출토되거나 배타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은 매우 흥미롭다. 즉,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는 둘 다 위석식노지가 마련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둥이 설치된 장방형의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또한 철정리Ⅱ A21호, C1호, 아우라지 1호, 8호 주거지의 경우와 같이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공열토기의 경우에는 대체로 세장방형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만큼, 돌대문토기나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구순각목토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다만, 공열토기가 아주 드물게 장방형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돌대문토기(평창 중부리 5호) 혹은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정선 아우라지 8호)와 함께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렇듯 2열 기둥 주거지에서 돌대문토기·이중구연토기와 공열토기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시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한 것인가? 이 문제는 2열 기둥 주거지의 시공간적 패턴을 살펴보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4.3. 2열 기둥 주거지의 시공간적 패턴

우리는 앞서 2열 기둥 주거지의 공간 사용 양상과 기둥 설치 방식에서 몇 가지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장방형에 바닥면에 초석이 설치

53) 반파되어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황상 세장방형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은 금산리 B-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토기는 공열문이 복합되어 있었다.

된 주거지들은 북부 권역(거례리 유적), 흥천 권역(철정리Ⅱ C지구, 외삼포리), 정선·영월 권역(아우라지, 주천리)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장방형에 초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주거지들은 평창 권역(종부리Ⅲ, 약수리 A, 천동리)을 중심으로, 그리고 세장방형에 초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주거지들은 춘천분지 권역의 거두리 2지구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장방형의 주거지의 기둥구멍 안에 초석을 설치한 경우는 춘천의 중도와 흥천의 철정리Ⅱ A지구에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2열 기둥 주거지의 서로 다른 양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시기에 존재했던 지역차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적 차이로 보아야 하는가? 우선은 후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주거지들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C 26 95.4%	2400 2100	...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	LAB
철A1																
철C5																
철C1																
철A3																
철A12																
철A21																
아우1																
거례61																
거례41																
거례29																
태장3																
종부3																
약수																
주천																
하화																
종부1																
종부4																
거두2																
하중																
급산																
철A54																
거두3																
거두5																
거두1																
거두4																
거두13																
거례20																PL

서울대 기초과학

[그림 10] 영서지역 2열 기둥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

[그림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서지역에서는 흥천 철정리II C지구 주거지들의 탄소연대가 가장 높이 올라가며, 철정리II A지구 주거지들과도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철정리II C지구에서 조사된 '장방형에 중심공간과 측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바닥에 초석을 설치한 주거지'를 영서지역 2열 기둥 주거지 전통의 초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사한 형태의 화천 거례리3 41·61호 주거지의 탄소연대가 북한강 유역에서 가장 높은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철정리II C-1호 주거지와 거례리3 41·61호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영서지역에서 처음으로 2열 기둥 주거지를 축조했던 주민들이 이중구연토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춘천 중도와 철정리II A지구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장방형에 중심공간과 측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초석을 기둥구멍 안에 설치한 주거지'의 경우에는 그 탄소연대가 앞서 살펴본 거례리나 철정리II C지구의 연대보다 낮아, 이 주거 전통이 바닥에 초석을 설치한 주거지 전통보다는 늦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평창 권역에서만 보이는 '초석이 설치되지 않은 기둥구멍들이 다소 불규칙으로 배치되었으나, 그래도 측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기둥구멍에 초석을 설치하고 내측기둥들을 정연하게 배치한 2열 기둥 주거지보다는 연대가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에서 공열토기가 높은 빈도로 확인되는 만큼, 영서지역에서 2열 기둥 주거지를 축조한 주민은 돌대문토기나 이중구연토기에 비해 공열토기를 비교적 늦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석을 사용하지 않고 측면공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주거지'는 춘천 거두리 2지구 주거지들의 연대와 철정리II A-54호 주거지의 연대로 볼 때, 영서지역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2열 기둥 주거지의 형태이다. 이 주거지들에서도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영서지역에서 2열 기둥 주거지를 가장 늦은 시기까지 축조한 주민이 공열토기와

구순각목토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에서 2열 기증 주거지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매우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던 화천 거례리 4지구(예맥) 20호 주거지에 관해, 그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장방향의 주거지는 초대형에 위석식노지 1개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주거지의 경우에만 장축이 하천과 평행하며, 노지가 전형적인 위치에서 이탈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주거지의 연대가 영서지역의 2열 기동 주거지 중 가장 늦은 기원전 800년 이후라는 점이 주목된다.<sup>54)</sup> 왜냐하면 비록 이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으나, 앞선 2열 기동 주거지들에서 이중구연토기가 사용되었던 만큼, 거례리 4지구(예맥) 20호 주거지는 이미 가락동유형의 문화요소로 정착된 ‘2열 초석 주거지’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화천 거례리나 홍천 철정리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부터 2열 초석 구조와 이중구연토기가 결합된 양상이 확인되는 만큼, 남한 지역 내에서 가락동유형의 형성은 그 시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적 늦은 시기의 거례리 4지구(예맥) 20호 주거지는 가락동유형 주거지가 완성된 이후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평창 종부리 5호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와 돌대문토기가, 그리고 정선 아우라지 8호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까지도 함께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두 주거지의 시간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주거지에 대해서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우라지 유적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최근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유물상을 보이는 주거지의 탄소연대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54) 이 방사성탄소연대만이 서울대기초과학동기기원이 아닌 Paleo Lab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늦은 연대가 분석기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은 동일한 유적에서 동일한 실험실에 맡긴 다른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의 연대가 1120 BC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5. 맺으며

영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 관찰되는 건축기술들이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건축전통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천전리 121-16번지와 같은 춘천 지역의 전환기 유적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위에서 확인된 2열 기둥 주거지 전통은 이 지역에 정착하거나 원래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외부에서 기원한 건축기술을 능동적으로 도입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축기술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사실 그 계통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두 지역 간 문화 요소의 일대일 대응을 중시하는 설명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북한지역에 매우 유사한 형태의 2열 기둥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단지 '계통론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이 자료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북한지역에서는 압록강 중·상류유역과 동북한지역 모두에서 2열 기둥 주거지가 확인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장방형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사용된 시중 심귀리 유적<sup>55)</sup>의 2열 기둥 주거지는 초석이 바닥 상면에 설치된 양상이나 건물 너비, 내측기둥열 간 거리, 내측기둥열과 벽면 사이의 거리로 볼 때 영서지역의 가장 이른 형태의 2열 기둥 주거지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두만강 상류유역에 위치한 무산 호곡 유적<sup>56)</sup>에서는 수혈식노지가 설치된 장방형 주거지의 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호곡 15호와 31호 주거지에서는 기둥구멍 안에 놓인 초석도 발견되었다. 호곡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 확인된

55) 정찬영(1983), 『압록강, 독로강 류역 고구려 유적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3집)』,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6) 황기덕(1975), 『무산 범의구석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 사회과학원.

건물의 너비는 5.5 m가 넘지 않는데, 이러한 수치는 영서지역의 ‘세장방형’ 2열 기둥 주거지에서도 관찰된다. 또한 두만강 중류유역에 위치한 회령 오동 유적(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sup>57)</sup>에서는 위석식 노지 혹은 수혈식노지가 설치된 장방형 주거지의 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대부분의 주거지에서는 기둥구멍 안에 초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동의 2열 기둥 주거지에서 발견된 기둥구멍들은 호곡에서 확인된 것들에 비해 작고 그 배치에 있어서도 정연함이 떨어진다. 오동 주거지들의 건물 너비는 4.1 m~6.5 m로 넓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내측기둥열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중심 공간과 측면공간의 너비가 모두 1.0 m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오동의 주거지에서의 기둥 배치는 정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략적이기는 했는데, 이는 영서지역의 평창 권역에 확인된 바와 유사하다.

이렇듯 압록강 중·상류유역 및 동북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와 영서지역의 2열 기둥 주거지 사이에는 공간사용 양상과 기둥설치 방법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포착된다. 따라서 두 지역 간에 ‘건축전통의 공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건축전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는 앞으로 토기상과 석기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

57)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1960), 『회령 오동 원시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3집)』, 평양: 과학원 출판사.

## 참고문헌

- Ingold, T. (1993), The Temporality of the Landscape. *World Archaeology* 25: 152-174.
- 강원고고학연구소(1998), 『횡성 화전리 청동기·철기시대 집자리 유적』, 춘천: 강원고고학연구소.
- 江原文化財研究所(2015a), 『楊口 高垈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5b), 『春川 牛頭洞 遺蹟 II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2a), 『春川 牛頭洞 遺蹟 I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2b), 『洪川 城山里遺蹟』, 춘천 : 江原文化財研究所, 2012.
- \_\_\_\_\_ (2012c), 『橫城 法周里 遺蹟』, 춘천 : 江原文化財研究所, 2012.
- \_\_\_\_\_ (2011a), 『原州 加峴洞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1b), 『정선 아우라지 유적』,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1c), 『春川 牛頭洞 遺蹟 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1d), 『春川 獐鶴里 I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1e), 『平昌 泉洞里 220번지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0a), 『寧越 三玉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0b), 『洪川 哲亭理 II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09), 『寧越 酒泉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08a), 『春川 擧頭2地區 遺蹟 :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
- \_\_\_\_\_ (2008b), 『洪川 外三浦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07), 『龍岩里』,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06), 『鐵原 瓦水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05a), 『龍岩里 II』,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05b), 『下花溪里·哲亭里·驛內里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江原文化財研究所(2005c), 『洪川 哲亭理 遺蹟』,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江原文化財研究所·원주지방국토관리청(2013a), 『春川 中島洞遺蹟: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D-E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_\_\_\_\_ (2013b), 『華川 居禮里遺蹟: 4대강 (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거례리유물산포지 1지구 5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고려문화재연구원(2014),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D구역(고려A·B)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약보고서』.
- 고일홍(2015), 『청동기시대 북한지역의 초석 주거지에 대한 검토』, 『湖西考古學報』 49집.
- 孔敏奎(2003), 『무문토기문화 가락동유형의 성립과 전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孔敏奎(2013), 금강유역 둔산식주거지 재검토, 『湖西考古學報』 30집.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1960), 『회령 오동 원시 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3집)』, 과학원 출판사.
- 김권중·홍주희·남귀희·김민지(2008), 『泉田里: 동면-신북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江原文化財研究所.
- 김용남·김용간·황기덕(1975),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노혁진(2003), 『춘천 신매대교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춘천: 翰林大學校 博物館.
- 노혁진·유창현·차우근(2007), 『횡성 학담리유적』, 춘천: 翰林大學校 博物館.
- 노혁진·정원철·강세호(2008),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춘천: 翰林大學校 博物館.
- 朴榮九(2016), 『江原嶺西地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展開樣相』, 『숭실사학』 36.
- 신숙정·박성희·김경중(2008), 『원주 태장동 유적』, 원주: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 安在皓(2000), 『韓國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輯.
- 예맥문화재연구원(2014),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C구역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부분완료(1차) 약식보고서』.
- \_\_\_\_\_ (2013a), 『華川 居禮里遺蹟: 4대강 살리기사업 북한강 12공

- 구 거례1지구 4구간 내 유적(B구역) 발굴조사보고서,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 예맥문화재연구원(2013b), 『華川 源川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 \_\_\_\_\_ (2012), 『春川 中島洞遺蹟 : 4대강 살리기사업 춘천 중도동 하중도 F지구 발굴조사보고서』,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 \_\_\_\_\_ (2011a), 『春川 擧頭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 \_\_\_\_\_ (2011b), 『春川 玄岩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 \_\_\_\_\_ (2009), 『華川 龍岩里遺蹟』: 화천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 \_\_\_\_\_ (2008), 『楊口 下里遺蹟』, 춘천: 예맥문화재연구원.
- 윤석인·김경환·김주홍·신승백·오소미(2012), 『平昌 泉洞里·馬池里 聚落』,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 이창현·신유리·오소미(2012), 『洪川 下花溪里 聚落』,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 이창현·신승백(2013), 『平昌 藥水里 聚落』,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 李清圭(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創刊號.
- 李亨源(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1), 『可樂洞類型 新考察』, 『湖西考古學報』, 4·5합집.
- 鄭智善(2013),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조·전기 주거지 연구 -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 출토 주거지를 중심으로』, 『韓國青銅器學報』, 12號.
- 정찬영(1983), 『압록강, 독로강 류역 고구려 유적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3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중부고고학연구소(2013), 『平昌 後坪里 遺蹟』, 안양: 중부고고학연구소.
- 지현병·홍순욱·홍주희·김영숙(2013), 『華川 居禮里遺蹟: 4대강(북한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화천 거례리 1지구 유물산포지 3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최종모·유창현·라경화·박동호·최종원(2012), 『春川 錦山里 遺蹟 :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금산지구)』,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 한강문화재연구원(2015),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A구역 내유

- 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1차)].
- 한강문화재연구원(2013), 『원주 반곡동 유적』,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_\_\_\_\_ (2012), 『원주 문막리 유적』,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_\_\_\_\_ (2008), 『원주 동화리 유적』, 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 韓國考古環境研究所·정선군(2008), 『旌善 愛山里 遺蹟』, 연기군: 韓國考古環境研究所.
- 한백문화재연구원·원주지방국토관리청(2013), 『화천 거례리 유적: 4대강 살리기 북한강 12공구 거례1지구 4구간 A·C~F 구역』, 서울: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 한백문화재연구원(2014),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B구역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약보고서』.
- 한병삼·이호관·조유전·지건길·최몽룡(1974), 『소양강수몰지구유적발굴조사』, 『팔당·소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서울: 문화재관리국.
- 한얼문화재연구원(2014),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A~E구역 내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약보고서(1차)].
- 황기덕(1975), 『무산 범의구석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
- 황정옥·김경환·송석명·정지정(2012), 『寧越 臥石里 遺蹟』,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 황정옥·송석명·신유리·임유진·정지정(2013), 『平昌 鍾阜里 遺蹟』, 원주: 江原考古文化研究院.

원고 접수일: 2017년 6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7년 7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7년 7월 26일

Abstract

---

Exploring the Nature of Cultural Exchange and Fusion  
in the Korean Early Bronze Age through an Examination  
of Houses with Dual Post Rows of the Yeongseo Region

Ko, Il-Hong\*

The use of dual post rows in Bronze Age houses has come to be regarded as an element of the Garakdong cultural assemblage. However, since the turn of the millenium, cases in which dual post rows have been identified in non-Garakdong culture houses have steadily accumulated. Therefore, it may be argued that a detailed study of dual post row houses is presently requir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in its earliest stage, this tradition of erecting two rows of internal posts was associated with the use of post footstones that were placed upon the house floor, and that the posts were distributed in such a way to maximize the utility of the dwelling spaces that had been divided by the post rows. This early form of dual post row use was identified in the Hwacheon, Hongcheon, Jeongseon, and Yeongwol regions, and later variations were identified in the Chuncheon and Pyeongchang regions. Radiocarbon dates indicate that this building tradition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in the Hongcheon re-

---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ion by 1800~1700 BCE and that by 1400 BCE, regional variations had emerged.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is tradition was associated with double-rim pottery and attached band pottery in its early stage and rim-perforated pottery in its later stage. Finally, it was observed that this tradition of dual post row houses shared many similarities with the houses of the Amnok River region and the northeast coastal region of North Korea.